

2008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민족의 정체성과 그 기원에 관해서는 근원주의와 상황주의라는 극단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을 근원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본다. 이때 민족은 선천적인, 그리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핏줄로 이어지는 가족처럼,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민족을 유전적 선택 과정과 합목적성의 확장으로 간주하는 주장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식, 태도, 감정의 문제로 본다. 개인의 상황이 변화하면 그의 집단 정체성이나 소속감도 변화할 것이다. 혹은 적어도 어떤 사람의 집단적 정체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민족적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 정치 사회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민족 정체성을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민족은 문화적 집단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민족은 종교, 관습, 언어 또는 제도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통해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기원 신화와 공유된 역사의 기억을 중요시한다. 언어, 종교, 관습 등은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때로는 개인들을 제약하기도 하는 문화적 징표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징표들이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징표들은 또한 특수한 역사적 동인(動因)의 산물이기도 하다.

민족이 문화에 의해 정의된다는 말은, 문화의 요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태가 변하더라도 세대들이 연속성의 느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과 시대에 대한 공유된 기억 및 그 집단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세대들이 갖는 공통 관념을 뜻한다. 즉, 민족의 정체성은 연속성에 대한 느낌, 공유된 기억, 집단의 운명에 대한 공통 관념 등 문화의 공통성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서 문제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신화, 상징, 기억, 가치들이 변형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이 여전히 한 민족의 구성원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구별 짓는 징표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제시문 (나)

이북(以北) 공산주의 한인(韓人)들이 이남(以南) 민주주의 한인들을 침략한 것이 단순한 내란(內亂)이라면 우리끼리 싸워서 남(南)이 이기거나 북(北)이 이기거나 국내에서 판결될 것인데,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같이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내란이 아니고, 강한 이웃나라가 뒤에 앉아서 이북 괴뢰군(傀儡軍)을 시켜 이남 민주 정부를 파괴한 후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저의 속국(屬國)을 만들자는 야심을 가지고 침략을 시작한 까닭에 민주세계에서 이와 같이 공분(公憤)을 느끼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버리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남의 주권 아래에 두며 민족을 다 노예로 만들어놓자는 것이 그 분자(分子)들의 목적이요, 살인과 방화를 일삼아서 참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미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미국 백성이 아니요, 영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영국 백성이 아니요, 중국 사람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며, 한인(韓人)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한인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

공산주의 선동에 빠져 나라를 팔고 민족을 남의 노예로 만들려고 활동하는 분자들은 ……[중략]…… 동족(同族)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인류라고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하략]……

*

공산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노예 되기를 감수하던지 우리의 자유와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변치 않고 싸우던지 하나를 택해야 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제시문 (다)

자, 보라. 현재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의 사상적 도화수(導火手)가 된 것이 누구인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적 의식은 아무리 하여도 중산계급을 벗어나지 아니 하며 적어도 중산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계급이 아닌가. 또 출선하여 물산장려운동의 실행적 선봉이 된 것도 중산계급이 아닌가.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훌륭한 물산장려계급이다. 자본가-중산계급이 양복이나 비단옷을 입는 대신에 그들은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에 그들은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저들 자본계급이 구실로 삼는 애국적이니 민족적이니 경제적 독립이니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요, 생활상 어쩔 수 없이 험하고 좋지 못한 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되는 이상 피착취계급인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만하면 물산장려운동이 중산계급의 운동임을 알 수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물산장려를 주장하는 근거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생각해보자. 물산장려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손으로 지은 물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좀 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외화(外貨) 배척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저들이 떠드는 구실을 빌려 말하면 우리의 생산기관을 발달케 하여 산업을 진흥시키며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란다. ……[중략]……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생산기관의 발달”, “산업의 진흥”,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표방하는지 계급적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략]……

실상 저들 자본가·중산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경제적 복종관계의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좋은 말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의 서로 반대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엄폐해버리고, 겉으로는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 배척을 말하는 것이며 속으로는 외래의 경제적 정복계급을 축출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착취계급으로서 그들을 대신하려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이라는 감상적인 수사로써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과 이해(利害)가 완전히 반대되는 노동계급의 지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저들도 외래의 자본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알며, 따라서 저들 새로운 승냥이와 이리의 전략에 홀려 계급전선을 흐릿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에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족적 경제 자립운동으로 토산품(土產品) 애용과 조선인 상공업 후원 등을 도모하였다.

제시문 (라)

다음은 민족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사용된 두 개의 질문이다.

- “귀하는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 “귀하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가운데 어느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두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서로 교차시켜 다음의 표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표에서 백분율은 각 행의 합이 100이 되도록 계산되었다. (각각의 백분율은 반올림하여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총합은 100%와 다를 수도 있다.) 표를 읽는 한 예를 들면,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다고 대답한 1,227명 가운데 약 51%에 해당하는 620명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대답했다.

단위: 명

		어느 국가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합계
		미국	북한	중국	일본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자랑스럽다	620 (51%)	388 (32%)	149 (12%)	70 (6%)	1,227 (100%)
	자랑스럽지 않다	166 (64%)	49 (19%)	20 (8%)	23 (9%)	258 (100%)
합계		786 (53%)	437 (29%)	169 (11%)	93 (6%)	1,485 (100%)

[문제 1] 제시문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0점, 8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 가지 관점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를 적용하여 현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논의하시오. 아울러 그 관점을 선택한 근거와 그 관점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를 밝히시오. (30점, 800자 내외)

[문제 3] 제시문 (라)의 표는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쪽이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가정하고,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표를 해석하시오. (40점, 1,000자 내외)

끝